

월/요/광/장

김유선



요즘 TV 프로에 '결정, 맛 대 맛', '당신의 결정' 등 '결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결심은 누구나 하지만 결단은 리더들만 한다. 도요타를 세계적 자동차회사로 만든 도요타 에이지의 결단은 수요지향적 생산을 위한 노동조직의 혁신이었다.

결단의 조건과 대선 후보

결단력이 강한 명성황후와 그렇지 못했던 고종은 부부로서는 합리적 관계였을지 모르나 두 사람 사이에는 단명했지만 자식도 많았다.

결단은 무모한 결정을 의미하는 게 결심이다. 바보들은 마음도 결심하는 게 결심이다. 바보들은 마음도 결심하는 게 결심이다.

원고가 출판되어 인기를 얻자 영국에서 뒤늦게 출판돼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그녀는 현재 영국의 최고 부자다.

200여 나라에서 '해리포터'가 출판된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는 100억 달러(약 9조3천억원)를 벌어들여 최고의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었다.

작품 속 해리 포터는 또래의 아이들보다 연약하지만 마법학교의 영웅이 된다.

운 용기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그날 운 좋게 생긴 것이 아니다.

결단에는 버리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결심을 실천할 수 없다. 한자어 결단(決斷)은 '끊고 자른다'는 뜻이다.

국화가 지면 한 해가 저문다는 만추의 꽃향기 흠뻑 질어가는 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누구누구 후보의 결단이라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틀, 주5,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대현



필자가 파산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후 지인들 대부분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곤 한다. 모를지기 사람이 남의 돈을 빌렸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파산신청자들은 파산제도를 악용, 뽀뽀하게 남의 돈을 때먹으려고 한다.

꼭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빚더미의 족쇄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활동에 참여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쟁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파산 사건을 맡고 보니...

제도에 부정적이다.

역력하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재산상실과 수입 현황 등 파산심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도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실제로 파산사건을 심리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의 파산 신청인들이 파산자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색감까지 갖고 있다.

물론 파산 사건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되는 것만은 아니다. 가끔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려 놓거나 카드빚을 얻어 남비를 일삼은 후 뽀뽀하게 파산신청을 한 일부 당사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빚 목록에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대입 자율화 방안' 空約으로 그치길 20%이상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수능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수능성적도 점수로 하지 않고, 9등급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고

박희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기 위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교육에 관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민감하게 주목할 사항은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수능 시험과목을 축소하며, 나아가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겨 자율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몇 개월 전 서울의 일부 사립대가 내신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겠다고 하여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다. 그 이후 내신을 원래대로 9등급제로 적용하고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혔으며, 2008년도에는 대부분 대학이

적으로 막는 장치가 내신이다. 만약 이후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대학은 내신 즉 학생부 반영을 최소화할 것이며, 머지않아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될 것이다.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오며, 더불어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30년 전의 과외 땅굴이 나온 것은 그 진원지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또한 현재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기형적 운영이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학교를 100개 더 설립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 바람은 거세지고 학부모 부

'대입 자율화 방안' 空約으로 그치길

20%이상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해 3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이번 이후의 교육공약에는 대학입시를 비롯해 주로 고등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왜 '대학의 혁신'에 관한 공약은 전혀 없고, 대학에 학생선발권만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 공약이 교육의 위기를 가져오고, 농어촌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대학입시 자율화' 자체가 대다수 국민이 갈망하는 최대한의 현실사업이며, 절대가치인지 묻고 싶다.

교원정원 감축으로 가뜰이나 농어촌 교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발표는 부디 '공약(空約)'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예전에 TV나 신문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에 대해 많이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많은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해 3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이번 이후의 교육공약에는 대학입시를 비롯해 주로 고등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왜 '대학의 혁신'에 관한 공약은 전혀 없고, 대학에 학생선발권만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 공약이 교육의 위기를 가져오고, 농어촌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대학입시 자율화' 자체가 대다수 국민이 갈망하는 최대한의 현실사업이며, 절대가치인지 묻고 싶다.

교원정원 감축으로 가뜰이나 농어촌 교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발표는 부디 '공약(空約)'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예전에 TV나 신문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에 대해 많이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시설

전남 '조선클러스터' 신성장 동력 기대된다

전남도가 21세기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조선타운(324만㎡)에 최대규모인 대한조선(108만㎡)을 비롯해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중·대형 조선업체가 1조9천19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고흥조선타운(73만㎡)에는 3개 중·소형 조선업체가 총 3천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전남조선타운이 준공되면 울산이나 거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조선산업단지 우뚝 서게 된다. 직접 고용인력 3만7천명에 10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연간 생산효과 5조9천억원, 지방세수는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산업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만성적인 인구감소와 낙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 조선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아야 할 산도 많다. '조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한 '윈-윈'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유가 급등...유류세 대폭 인하해야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유가 급등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 달 사상 최초로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한 국제유가는 한달여만에 90달러선을 넘었고 올해 안에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기름값은 원가보다 세금이 많은 기형적 구조다. 대표적 유류인 휘발유 값은 세금이 60%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가 0.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경우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기름값은 원가보다 세금이 많은 기형적 구조다. 대표적 유류인 휘발유 값은 세금이 60%에 육박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동영 두 유력 후보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가난 대결'이다. 이 후보는 뽀뽀, 불어뽀, 과일 노점상에 쓰러기 청소부를 하며 고학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 또한 어머니와 함께 옷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랭크 리치는 "대중들이 볼 때는 부자들 사이에 가까워 풀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를 주변에는 자기 자신 혹은 정치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팔아보려는 속셈으로 하류층 출신이거나 빈민가 출신이라는 감언이설로 무장한 부유층 정치인이 가득하다"고 갈파한 바 있다.

無等鼓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이 개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매력적인 소재거리다.

1979년 총리에 올라 11년동안 집권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식료품가게 주인의 딸로,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총리직에 오른 대처는 영국 시민들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이미지와 실상은 달랐다. 식료품가게 주인 정도로 묘사된 대처의 아버지는 식료품 체인을 거느린 거상이었으며, 입주 보모를 둘 정도의 부자 남편 덕에 자녀 양육이나 가사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

의 이미지는 시민들의 기호에 걸맞게 포장된 조각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선거도 마찬가지다. 서민 후보로 재미를 본 경우는 클린턴이 대표적이다.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망인이 됐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솔직히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민정부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클린턴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자신의 빈약한 출신을 선거에 최대한 활용한 케이스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동영 두 유력 후보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가난 대결'이다. 이 후보는 뽀뽀, 불어뽀, 과일 노점상에 쓰러기 청소부를 하며 고학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 또한 어머니와 함께 옷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랭크 리치는 "대중들이 볼 때는 부자들 사이에 가까워 풀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를 주변에는 자기 자신 혹은 정치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팔아보려는 속셈으로 하류층 출신이거나 빈민가 출신이라는 감언이설로 무장한 부유층 정치인이 가득하다"고 갈파한 바 있다.

거기에 누가 더 가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 서민의 편에 설 후보가 누구인가가 문제다.

정 후보 또한 어머니와 함께 옷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랭크 리치는 "대중들이 볼 때는 부자들 사이에 가까워 풀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를 주변에는 자기 자신 혹은 정치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팔아보려는 속셈으로 하류층 출신이거나 빈민가 출신이라는 감언이설로 무장한 부유층 정치인이 가득하다"고 갈파한 바 있다.

거기에 누가 더 가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 서민의 편에 설 후보가 누구인가가 문제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가을 산행 조난사고 급증...해지기 전 서둘러 하산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1년 열 두 달 중 등산하기에는 가장 좋은 날이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첫서리가 내리는 등 조령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10~15도까지 벌어진다. 또 비가 내리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높은 지대는 바람이 불면서 겨울과 비슷한 체감온도를 느끼게

유아 그림책 모서리 뽀뽀해 위험...안전 고려했으면

조카들에게 그림 동화책 선물을 하려고 서점에 갔다.

도 책 모서리의 뽀뽀한 부분이 어린이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것과 실제로 그로 인한 사고사례도 많이 소개되었던 것으로 안다.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대부분 안전을 고려하여 책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보기도 좋고 안심도 되었다. 그러나 2세 이상의 유아들이 보는 그림동화책은 한결같이 책표지가 하드커버라 모서리가 뽀뽀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게 보였다.

매년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말만 하면 뭐하는가. 어린이책을 다루는 출판사들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승정동